울산 : 산업‘ 수도 ’영광 되찾기 - 300만평 공장 부지 공급

- 차세대성장동력으로정밀화학산업단지조성도 -

지난 5 · 31 지방 선거 재선에 성공한 박맹우 울산시장은 경제 분야에서 300만평 규모의 공장 용지 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은 오는 2011년까지 산업용지수요를예측한결과, 약300만평정도의공장용지가필요할것으로보고, 기업에서필요로하는공장용지적기공급을위해 총 9,349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효문공단및길천단지등현재조성중인8개단지에 총 325만평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신산업단지와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모듈화단지의 경우에는 민자 사업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비 및 민자로 2007년부터 추진될 국가산업단지 및 가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 180만평 규모로 3,500억원을 추가로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300만평 공장 용지 공급, 실천‘ 가능 ’

이번 5 · 31 지방 선거에서 달라진 선거문화중하나가바로실천가능한공약을제시하자는 메니페스토 운동의 본격화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 시장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한 300만평 규모의 공장 용지 공급 공약은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도높다고평가받고있다.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 현상은 산업도시 울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선결과제인만큼공장용지확보는 울산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의 면적은 서울의 1.7배로 현재조성과정에있는8개공단 지역과새로추진 예정인 2개 지역 역시대부분미개발지역이많아용지확보에큰무리가 없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산업수도의영광뒤에늘따라다녔던공해도시라는 오명을벗기위해서는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오명을 벗기 위해‘ 생태 도시(ecopolise) 건설 ’슬로건을내걸고그간단계적인노력을통해환경개선작업을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지금은 울산의 젖줄이라 불리는‘ 태화강 ’에 연어가 다시 돌아올 정도로 깨끗한 친환경도시로거듭났고, 그간 오염을 양산해왔던 개발 위주의 정책은 친환경 정책으로완전히돌아섰다. 이에따라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계획되고있는공장용지확보도그대전제로서환경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인 것임은 두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다음으로 박 시장은 울산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뽑히고있는정밀화학산업단지조성을공약으로제시했다. 박시장은중구다운동 일대에 2009년까지 41,27평, 741억원 규모로 테크노 파크 및 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정밀화학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관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인 화학 산업핵심기능을수행하고자계획된것이다. 이를 위해박 시장은 2002년부터 기투자한 524억원에 나머지 217억원을 매년 단계별로추가투자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영도산터널 및 울산대교 건설

그외박시장은울산의균형된발전을위해바다가인접한동구지역으로통하는염포산터널및 울산대교건설을 추진하는한편, 총사업비5,619억원규모로고가차도및도로확장공사등을통해간선도로망을확충, 시가지교통체증해소및차량운행속도를향상시키겠다고밝혔다.

지리적으로 중심가와 많이 떨어진 동구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울기등대와 대왕암공원등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지만교통망부족등의이유로상권이 몰락하고인구가감소하는등최근후퇴일로를걷고있다. 이에 박 시장은 동구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염포산에 총사업비 3,439억원 규모로 터널을뚫는한편, 남구매암동과동구화정동을 잇는 울산대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제시했다.

다만, 시에서는총3,439억원의사업비를 충당하기위해2,429억원정도는민간투자로마련할계획인데, 이와관련해유료화문제가발생, 민간투자실시에대한찬반논란이가중되고있어이에대한보다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한편, 시에서는민간투자시행과관련해올상반기기획예산처의민간투자심의위원회심의를받고, 하반기에는 제 3자 모집 공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할방침이다.

이상길
울산매일신문기자